

CBS가 만든  성경 채널
알림바이블 대본집

Ep.093

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

(마태복음 21:1~22:46, 마가복음 11:1~12:44,
누가복음 19:28~21:4, 요한복음 12:12~19)

**베다니 마을에서의 잔치 후, 다음날이 밝았어요.
오늘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으로
가는 날이었죠.**

**예루살렘 근처 ‘벧바게’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
예수님께서 두 명의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어요.**

**“저 맞은편 마을에 가면, 당나귀 한 마리가 묶여 있을 것이다.
너희는 그 나귀를 풀어서 나에게 가져 오거라.”**

“주인이 나귀를 못 가져가게 하면 어떡하나요 예수님?”

**“그러면, ‘나귀를 주님이 쓰실 것입니다.’
이렇게 말하면 된다.”**

**두 제자가 마을에 가보니
신기하게도 정말 나귀가 매여 있었어요!**

제자들이 조심스럽게 끈을 풀고 나귀를 가져가려는데

**“거 뉘시오?
왜 남의 나귀를 허락도 없이 가져가는거요?”**

“이 나귀를,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셨소.”

제자들이 예수님이 시키신대로 말하자
정말로 나귀 주인은 흔쾌히 나귀를 내어주었어요.

그나저나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.

**“거 이상하지. 예수님께서 타고 가실 거라면 백마라든지
더 근사한 짐승을 타야하는 거 아니야?”**

**“그러게 말이야. 고작 짐을 나를 때 쓰는
나귀를 왜 타시겠다는 걸까?”**

하지만 사실 이 일은
구약성경에서 ‘스가랴’라는 선지자가 이미
예언한 바 있습니다!

**“히히힝!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
‘네 왕은 의로우며 겸손하셔서 왕이 오실 때
나귀를 타고 온다고 돼 있어용!’ 히히히힝!”**

제자들이 나귀의 등에 자신들의 옷을 깔았어요.
예수님께서서는 그 위에 앉으셨죠.

그리고 잠시 후

**“주님, 저기를 보십시오!
길 양 옆으로 사람들이 배배곡합니다!!”**

정말이었어요.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
보기 위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서 있었죠!

어떤 사람들은 입고 있던 겹옷을 벗어서
예수님이 지나가는 길 위에 카펫처럼 깔기도 했죠.
그렇게 예수님께서서는 마침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어요!

온 성이 떠나갈 듯 사람들의 함성이 들리고.
앞을 못 보는 사람, 다리를 저는 사람
그 밖에 병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왔죠.

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,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치료해주셨어요.

예수님께서서는 성 안의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.
그런데 성전의 풍경이, 2년 전, 예수님께서서 보신
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죠.

**“골라 골라! 제사에 쓰일 제물을 팝니다!
양. 염소. 비둘기. 말씀만 하세요!
늘 특별히 30% 깎아드릴테니! 골라 골라!”**

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
그새 다시 시장판처럼 변해 있었어요.
예수님께서서는 무척이나 화가 나셨죠.

**“이곳은 ‘기도하는 집’이거늘, 너희가 이곳을
‘강도들의 소굴’로 바꾸어놓았구나!”**

예수님께서서는, 장사꾼들의 상과 의자를 엮어버리시며
모두를 쫓아내셨습니다!

그런데 여러분, 기억하나요?

**늘 예수님을 미워하고, 헐뜯고, 심지어 예수님을
해치려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
그들은 예수님이 성전에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
그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기로 마음먹었어요.**

먼저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

**“예수 선생님, 당신은 진실한 분이고 진리만을
가르치신다 들었는데 하나만 물어봅시다. 낄낄낄.”**

**“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의 황제 ‘가이사’에게
우리게 세금을 내는 게
맞습니까, 안 내는 게 맞습니까?”**

**이건 정말, 치밀하게 준비된 질문이었어요.
만일 예수님께서서 세금을 내는 게 맞다고 하시면
유대인 백성들의 미움을 받으실 테고
그렇다고 세금을 안 내는 게 맞다고 하시면 그때 로마 사람들이
예수님을 반역죄로 체포해 갈 수도 있었거든요.**

예수님께서서는 어떤 대답을 하셨을까요?

**“겉으로는 공손한 척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하는 자들아.
너희가 나를 시험하는구나.
내가 답을 줄테니 로마의 동전 하나를 꺼내 보거라.”**

한 사람이 은화 한 닢을 꺼냈어요.
그러자 예수님께서서 말씀하셨죠.

“이 동전에 새겨진 얼굴이 누구의 것이냐?”

**“그야, 황제 가이사의 것이지요. 동전의 그림과
글만 봐도 아시지 않습니까?”**

**“그래. 그렇다면,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.
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면 되지 않겠느냐!”**

**어떠한 함정에도 걸려들지 않는 정말 지혜로운
답변이었어요.**

**의기양양했던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
머쓱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.**

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 있을 때
여러명의 부자들이 성전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어요.

**“에헴! 하나님, 오늘 제가 신경 좀 썼습니다.
여기 돈자루 묵직한 거 보이시죠?
헌금 들어갑니다!”**

**“저는 더 많이 가져왔습니다, 하나님!
제가 가장 많은 헌금을 바쳤으니
은혜를 베풀어주시겠죠?”**

**그런데 그 때, 한 가난한 여인이 성전에 들어와
헌금을 했어요.**

**여인은 낡아버바진 옷의 주머니에서 동전 두 닢을 꺼내
헌금함에 넣고 돌아갔죠.**

그 모습을 모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.

**“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하노니
방금 저 가난한 여인이, 헌금을 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도
더 많이 헌금을 하였구나.”**

제자들이 아리송한 표정을 지었어요.
헌금을 더 많이 한 건 부자들이었으니까요!
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.

**“다른 모든 사람들은
넉넉한 중에서 헌금을 하였지만
저 여인은 가난한 중에도 생활에 필요한 모든 돈을
바쳤기 때문이란다.”**

그제야 제자들은 깨달았어요.
중요한 건 얼마를 헌금함에 넣었느냐가 아니라
헌금을 드릴 때의 진실한 마음이라는 걸 말이죠.

여러분도 교회에 갈 때
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보여드려야겠죠?